

# 이재명 “민심, 하늘 뜻처럼 두려워해야...마지막까지 최선”

이낙연과 광주동행 ‘비전위’ 회의  
“양극화·복지 등 위기 극복  
민주당과 이 후보가 해낼 것”  
민주진영 결집·중도 확장 역할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‘원팀 행보’와 결속이 ‘국가비전-국민통합위원회’ (비전위)를 매개로 속도를 내고 있다.

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출범한 비전위의 광주 비전 회의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. 이날 이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 처음으로 광주에 동행했다. 경선에 패한 뒤 두 달 가까이 집거했던 이 전 대표도 이날 최대 맞수였던 이 후보와 함께 처음으로 민주당의 첫 번째 지지자의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아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.

이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후유증이 비로소 봉합되고, 새해부터 본격적인 ‘원팀 행보’를 통한 지지율 상승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. 이 후보의 대선 캠프 산하에 수 많은 위원회가 신설돼 있지만, 이 후보가 직접 공동대표를 맡은 것은 비전위 하나 뿐이라는 점도 향후 비전위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비전위를 통해 향후 대선일까지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협력과 결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 특히 이 전 대표가 제안해 만든 비전위는 민주진영 결집과 중도 세력 확장 등 의연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앞으로 대선까지 이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.

이 때문인지, 이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‘원팀’과 민주진영의 결속을 강조했다. 이 후보는 기초발언을 통해 “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다.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”며 “경쟁했던 모든 후보가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 주고 계신다”고 감사의 뜻을 표사했다. 이어 “열린 민주당과의 통합도 결정됐다. 한때 이런저런 이유로 당을 떠났던 우리의 옛 동지들도 하나의 전선으로 다시 모이고 있다”며 “단결된 힘으로 위기를

기회로 만들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”고 말했다.

이 후보는 또, 이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로 올라선 것과 관련해 “정말 민심이 하늘의 뜻처럼 두려워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그는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“1주일, 열을 사에도 천지개벽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지지율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. 이 후보는 “저희는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능하고 실천적이고 좀 더 많은 실적으로 증명할 거리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끊임없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언제나 겸허하게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겠다”고 했다.

이 전 대표도 이 후보와의 동행과 결속을 강조했다. 이 전 대표는 “산업현장에서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피 흘리고 있다. 생활고 때문에 많은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. 코로나 위기에 짓눌린 자영업자들은 죽음 같은 고통을 매일 겪고 있다”며 “이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. 그 일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시작하겠다”고 말했다. 이 전 대표는 “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이어서 이 일을 맡은 것을 크나큰 책임감으로 받아들인다”며 “국가비전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우리의 지혜를 하나씩 내놓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비전위는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홍영표, 도중환, 설훈, 정성호, 조정식, 진선미 의원 등 9명의 현역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다.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와 이 전 대표 측에 몸을 담았던 의원들이 모두 함께 포함돼 ‘원팀’ 효과를 더욱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. 또한, 54명의 현역 의원들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. 이 전 대표 측에 몸을 담았던 의원들이 모두 함께 포함돼 ‘원팀’ 효과를 더욱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. 또한, 54명의 현역 의원들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. 이 전 대표 측에 몸을 담았던 의원들이 모두 함께 포함돼 ‘원팀’ 효과를 더욱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.

비전위는 매주 비전회의를 통해 민주, 혁신, 포용, 미래, 평화 등 5개 분야별 비전 메시지도 제시할 계획이다.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는 비전위는 ‘대한민국 꿈 오르기 프로젝트, 우리가 함께 꾸는 나라’라는 비전 투어를 시작할 예정이다. 각계 각층의 국민들에게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받아 이를 정책 비전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. 이날 광주 비전회의에서도 국민 및 당원들을 대표하는 ▲6070 선배시민의 꿈 ▲상생일지리의 꿈

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담양군 담양 에코센터를 방문해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.

/연합뉴스

▲엄마의 꿈 ▲청년농부의 꿈 ▲문화예술인의 꿈을 대변하는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, 이 후보와 이 전 대표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

비전위 수석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“비전위의 역할은 민주진영의 결속과 중도층으로의 확장을 통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”이라면서 “비전위를 통해 그동안 이 후보에게 등을 돌렸던 이 전 대표의 지지층과 일부 친문 세력 등 모든 민주진영 세력과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 흡수 등이 이뤄질 것이다”고 전망했다.

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

## 대선 다자대결 이재명 37.6%·윤석열 29.2%

갤럽 조사...안철수 12.9%로 상승  
리얼미터 2030 대상 조사

이 33.4%·안 19.1%·윤 18.4%

차기 대선후보 다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지지율 격차로 우위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.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2%대를 기록해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다.

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3~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 후보는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4.7%포인트 오른 37.6%를 기록했다. 윤 후보는 6%포인트 하락한 29.2%로 나타났다.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.4%포인트였다. 이번 조사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‘선대위 전면 개편’ 전격 발표(3일)로 윤석열 후보가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하는 등 국민의힘 선대위의 자중지란이 극심했던 시점에 이뤄졌다.

2주 전 조사에서 이 후보는 32.9%, 윤 후보는 35.2%였다. 안 후보는 2주 전 조사 대비 5.4%포인트 오른 12.9%를 기록했다. 최근 일부 다른 조사에서 10%대에 오른 데 이어 12%대까지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. 정의당 심상

정 후보는 3.6%,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는 0.2%로 뒤를 이었다. 20대 지지율에서 이 후보는 27.2%, 안 후보는 19.7%, 윤 후보는 15.6%를 기록했다.

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3~4일 전국 만 18~39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이 후보는 33.4%를 기록했다. 안 후보는 19.1%, 윤 후보는 18.4%로 오차범위 내인 0.7%포인트 차이를 보였다. 심상정 후보가 7.5%, 김동연 후보가 1.4%로 뒤를 이었다.

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묻는 ‘비토 후보’에 대한 응답은 윤 후보가 48.8%로 가장 높았고, 이 후보가 36.2%로 뒤를 이었다.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중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‘부동산’이 33.4%로 가장 높았다. 이어 일자리(19.6%) 지역균형발전(13.5%) 남녀평등(11.2%) 외교·안보 문제(11%) 순이었다.

갤럽 조사의 응답률은 17%였고, 조사원과 직접 대화하는 유·무선 전화 인터뷰로 실시했으며 무선 87.9%, 유선 12.1%였다. 리얼미터의 응답률은 6.9%였으며 무선 가상번호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조사(ARS)로 진행했다. 두 조사의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 3.1% 포인트다.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. /연합뉴스

## 이재명, 尹과 격차 커지니...여권서 잦아드는 안철수 연합·연대론

송영길 “단독 승리 위해 노력”

김동연엔 여전히 문 열려둬

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한 제3지대 연합·연대론이 잦아들고 있다.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여권 대통합으로 진영 결속을 끝내자마자 새해에는 외연 확장을 위한 제3지대 공략에 당력을 모을 것 같은 분위기였으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커지자 당내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.

당장 민주당에서 안 후보를 연대·연합 대상으로 처음 소환한 송영길 대표의 발언도 이전과 다른 모습이다. 그는 지난달 26일 “안 후보가 국민의힘 윤

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”면서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. 그러나 그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발언과 관련, “우리 단독으로도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”고 전제한 뒤 “안 후보가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 이 후보와 더 잘 어울릴 것이라 점을 지적한 것”이라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.

이재명 후보도 애초 전 날 신년 기자회견에 연합 정부 구성 의지를 밝힐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두루 쓰겠다는 메시지만 담았다. 송 대표가 먼저 치고 나간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제3지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소극적으로 바뀐 것은 최근 대선 판세가 크게 바뀌면서 구도가 다시 짜이는 흐름을 보이는 것

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.

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윤 후보는 지지율이 크게 빠지는 흐름을 보였다. 나아가 윤 후보에서 이탈한 표심의 일부가 안철수 후보로 넘어가는 모습도 보인다.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윤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커지면서 ‘단독 승리’ 기대가 높아진 상태다.

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두고 있다.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총리 출신인 김 후보의 경우 민주당과 접점이 있는 데다 안정적 이미지, 행정 능력 등이 이 후보의 결합 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. 이런 이유로 김 후보의 종로 보선 차출설, 차기 내각 참여 등의 아이디어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. /연합뉴스

녹동~거문도 1시간20분  
**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**  
거문도 백도 당일 **89,000원**  
여/행/문/의  
|메이투어 062)385-0515  
|아이티여행사 062)382-8866  
후원: 삼도해운, 플래티늄 • 승선문의: 061)834-3434

**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**  
아파트, 빌라, 원룸, 주택, 상가건물, 대형빌딩 등(슬라브 옥상) 시공

**옥상지붕공사**  
슬라브 주택,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

**옥상 스틸방수**  
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! 여름의 뜨거운 열기!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!

**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** 디자인 등록 제30-0934833호 제30-0949873호  
**광주·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.**  
M **모던건설** (트윈스틸) 시공 문의 **062)531-3530, H. 010-9229-3530**